

#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

2018.12.

- 출장기관 : 중국 장쑤성 난징시 2개 기관, 상하이시 1개 기관
- 출장일시 : 2018년 11월 26일 ~ 11월 29일(3박4일)
- 출 장 자 : 환경생태연구부 정종관 박사,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윤종주 박사, 미래전략연구단 송영현 박사
- 주요내용 : ①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및 관심 사항 파악(장쑤성)  
② 본 연구 핵심사업에 대한 의향 타진 및 사업추진 창구 마련  
③ 지방정부의 국제창업 동향 파악 및 충남 국제창업 활동의 해외거점 확보(장쑤성)  
④ 지방 정부 간 초국경 환경 협력 방안 모색 등

충남연구원

#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

## 1. 공무국외 여행 개요

- 기간: 2018년 11월 26일(월) ~ 11월 29일(목), 3박4일
- 여행자: 환경생태연구부 정종관 박사,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윤종주 박사, 미래전략연구단 송영현 박사
- 여행국: 중국 (장쑤성 난징시, 상하이시)
- 방문기관: 장쑤성사회과학원, 난징 Youth Space(청년창업공간), 상하이 해양환경 NGO 단체 렌두
- 주요 일정:

일자	일자	시간	활동
1일차	11월26일(월) (난징)	12:30-14:50	출국(인천 → 난징)
2일차	11월27일(화) (난징)	10:00-12:00 15:00-17:00	장쑤성 사회과학원 회의 난징 Youth space 회의
3일차	11월28일(수) (난징, 상하이)	10:00-13:00 15:00-17:00	이동(난징 → 상하이) 상하이 환경 NGO 렌두 회의
4일차	11월29일(목) (상하이, 인천)	11:35-14:30	복귀(상하이 → 인천)

## 2. 주요 활동내역

- 장쑤성 정부의 지방차원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및 관심 사항 파악
- 본 연구 핵심사업에 대한 의향 타진 및 사업추진 창구 마련
- 장쑤성의 국제창업 동향 파악 및 충남 국제창업 활동의 해외거점 확보
- 지방정부 간 초국경 환경협력 방안 모색 및 향후 지속논의를 위한 대상 확보

### 3. 일별 활동 내역

#### ○ 1일차(18.11.26)

- 출국 및 숙소 이동
- 2일차(장쑤성 사회과학원 및 난징시 Youth Space) 회의 자료 준비

#### ○ 2일차(18.11.27)

- 장쑤성 사회과학원 및 난징시 Youth Space 관계자와 연구 관련 회의 실시

#### 1) 장쑤성 사회과학원 회의 결과

##### ■ 대상자

성명	소속	직급
xuzhiming	장쑤성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소장
zhangyunpeng	장쑤성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tangyongcun	장쑤성 사회과학원 과학연구처	주임

##### ■ 주요내용

- 충남연구원, 장쑤성 사회과학원 상호 간에 기관 소개 실시함
  - ▶ 장쑤성 사회과학원은 충남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쑤성 정부의 싱크 탱크 기관임
  - ▶ 연구원 산하 12개 연구소에서 220명의 연구원이 복무 중이며 연구분야는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등으로 다양함
  - ▶ 2017년 실시된 중국 31개 지방정부 사회과학원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함
  - ▶ 국제학술교류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교류를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 대학교, 전북연구원과 교류 진행 중임
  - ▶ 국제학술교류는 학술토론회, 방문학자 제도, 공동연구 3분야로 나누어 실시 중임
- 이어서 장쑤성의 경제, 환경, 농어업 분야 특징에 대한 설명 및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관련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 실시함
- 장쑤성의 경우 한국과 깊은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옌청(鹽城,

- 장쑤성 산하 지급시)에 있는 한중 산업단지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입지하여 매년 약 6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 중임
- ▶ 이 밖에 한국, 특히 충남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역시 장쑤성으로의 수출량 많은 편임
  - ▶ 상기 품목들은 중간재 형태로 수출되며 최종재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장쑤성 쑤저우 시에 중점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상황임
  - ▶ 향후 위 품목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의 대중국 FDI(외국인 직접투자)규모를 유지·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또한 국제창업 관련하여 지방차원보다는 만인계획, 천인계획 등으로 명명되는 중앙차원의 정책이 많은 편이며, 이들은 대부분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인력을 모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장쑤성의 환경 관련 특징 및 충남과의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장쑤성은 산업시설의 집단입지 유도, 오염총량 배출제 등을 통해 엄격한 환경규제를 실시 중임
- ▶ 또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비록 재생에너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 ▶ 해외 천연가스 채굴 및 원료 수입을 추진 중이며 수입된 가스의 정제기술 등에 있어 충남이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협력 가능하다고 설명함. 이미 홍콩, 싱가포르 등과는 협력관계 구축함
  - ▶ 장쑤성은 태양열 발전(전국 생산량의 절반) 규모가 크고 태양열의 전기에너지 전환 기술이 좋은 편임. 이 분야에서도 충남과 기술적·정책적 협력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 ▶ 한편, 장쑤성은 환황해권 갯벌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보다는, 갯벌지역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공동협력을 실시하고자 함
  - ▶ 갯벌지역에 중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 이 밖에 미세먼지 분야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정책적 노력 외에도 국가나 지방정부 행사 시 행정명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임
- ▶ 미세먼지 분야의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는 낮은 편임. 미세먼지는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임. 관련하여 충남-장쑤성 간 공동연구, 데이터 축적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임
- 마지막으로 장쑤성 농어업분야 특징 및 충남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장쑤성은 화학비료 및 비닐제품 사용량 절감, 해양양식장 규모 감소 및 양식기술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즉, 농어업 분야에서 역시 환경 관련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 ▶ 이촌향도 문제,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 역시 충남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나, 장쑤성은 문제가 덜 심각한 편임. 중국 특유의 호구제, 지역발전 단계의 차이 등이 이유일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련분야 협력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 농어업 분야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장쑤성은 농업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특화작물 육성 및 6차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의지 있음



[사진] 장쑤성 사회과학원 회의  
참석자 사진



[사진] 장쑤성 사회과학원 회의 사진

## 2) 난징시 Youth Space 회의 결과

### ■ 대상자

성명	소속	직급
wuxiaohong	난징시 Youth Space	CEO
zhangxiangbai	난징시 Youth Space	품질운영부 주임

### ■ 주요내용

- 장쑤성의 청년창업정책, Youth Space 운영현황,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관련 협력분야를 논의함
- 장쑤성의 청년창업 정책은 다음과 같음. 장쑤성은 2018년 2대 창업분야(創業(창업)과 創新(혁신))정책을 적극 실시하며 창업과 기술혁신의 인재를 끌어 모으기 위해 노력 중임
  - ▶ 노력의 일환으로 우수인재들에게 인민폐 50-500만 위안에 이르는 창업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 중임
  - ▶ 국제창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지원이 많은 편은 아님.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쑤성의 모든 창업지원정책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국적과 관계없이 정책이 펼쳐지는 경우 다수임
- Youth Space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Youth Space는 기본적으로 민간 플랫폼이나 장쑤성, 난징시, 구러우구(鼓樓區) 등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운영되는 창업 플랫폼임
  - ▶ 난징 외에도 상하이, 톈진, 항저우에 Youth Space가 있으며 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함
  - ▶ 2016년 쑤닝(蘇寧, 중국 최대의 전자제품 유통회사)의 자회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7년 상하이에서 운영되던 유사 창업 플랫폼인 Coco Space를 인수합병하며 플랫폼 규모 확장함
  - ▶ 난징 Youth Space에는 현재 3개 스타트업 50여 명의 직원이 공간을 임대하여 근무하고 있음
  - ▶ Youth Space의 장소 임대료는 난징시와 구러우구에서 전액 부담 중이며, 상기 기관들이 실내 인테리어비 1/3도 지원 중임

- ▶ 장수성과 난징시의 상무국, 공업정보화국 등에서 청년 창업관련 정책을 펼칠 때 Youth Space가 정책실행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 스타트업의 초반 인큐베이팅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이므로 초반 인큐베이팅 기간(6개월)이 지나면 실제 수익창출 성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 수익창출 실적이 없을 경우 기업을 퇴출시킴
- ▶ IT창업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기관인 우전(郵電)대학 근처에 입지하여 해당분야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
- ▶ 국제창업에 대한 의지 높은 편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 한중일 합작기업을 인큐베이팅 한 바 있음. 현재 KOTRA와도 협력 관계 유지 중임
-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의지 높은 편이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함
- ▶ 충남이 청년 창업대회, 발명대회 등을 추진할 시 인력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 이전 단계에서 공동 브랜드 마련 및 명패 교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함



[사진] 난징 Youth Space 회의  
참석자 사진



[사진] 난징 Youth Space 전경

### ○ 3일차(18.11.28)

- 상하이 해양환경 NGO 단체 렌두(공식명칭 : 상하이해양공익발전중심 렌두)  
대표와 연구 관련 회의 실시

## 1) 상하이시 렌두 회의 결과

### ■ 대상자

성명	소속	직급
liuyonglong	상하이해양공익발전중심 렌두	소장

### ■ 주요내용

- 렌두 소개, 중국의 해양환경 NGO, 지방정부의 국제 해양환경사업 참여 현황,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에의 참여 가능성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인터뷰 실시함
- 중국 유일의 해양쓰레기 관련 NGO 단체인 렌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중임
  - ▶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최초의 업무는 미국 특정 기업과 협력하여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었음
  - ▶ 현재 렌두는 해양 쓰레기 줍기,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연구, 해양환경 교육, 해양환경보호 NGO 협력 추진의 4가지 업무를 수행 중임
  - ▶ 앞의 3가지 업무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나 해양환경보호 NGO 협력은 중국 전역 및 해외 주요 국가를 포괄하는 것임
- 렌두 및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 해양환경사업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렌두는 국제 해양쓰레기 업무의 중국 협조기구이며 국제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ICC) 활동에 참여 중임
  - ▶ 또한 한, 중, 일, 러 등 국가로 구성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에도 참여 중임
  - ▶ 환경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활동 실행 중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아님. 현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임
  - ▶ 한편, 중국의 경우 지방 간 초국경 해양환경협력 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위주로 이뤄지는 편임
  - ▶ 웨이하이, 샤먼, 샌프란시스코, 뉴욕 간의 해양 쓰레기 처리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한, 중, 일, 러가 참여 중인 GPML(해양쓰레기 지구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의 산하기구 DINRAC(데이터 및 정보 네트워크 지역 활동 센터,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함
- ▶ DINRAC 베이징 데이터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양쓰레기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으므로, 해양쓰레기 데이터와 관련된 국제협력 방안 모색 시 해당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 모색 필요함
- 렌두 및 중국 지방정부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 참여 가능성,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함
  - ▶ 렌두의 경우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초국경 협력에 대한 의지 강한 편임. 그러나 중국의 모든 NGO는 국제 협력 활동에 있어 경외(境外)NGO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이러한 점은 다소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 상하이시, 장쑤성과 같은 지방정부 역시 국제 환경협력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긴 하나,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무리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 ▶ 렌두 또는 상하이시, 장쑤성 등 지방정부가 충남과 함께 해양환경 협력 관련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와 이견이 없고 사업의 목표가 분명한 사업일 경우 동일 기간, 동일 방법 등 공통표준에 의한 공동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 국제환경상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재 중국은 독일, 유럽의 환경상에 참여 중임. 렌두 역시 마찬가지임. 국제환경상 참여를 통해 기관 홍보가 가능하며 수상할 경우 조직 운영을 위한 자원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 충남이 국제환경상을 마련할 시 대외홍보를 적절히 실시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할 것임
  - ▶ 시상자 선정 과정의 합리성, 개방성 확보를 위해 충남 인사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의 관련 인사가 시상자(단체, 지역)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사진] 상하이 렌두 회의 사진



[사진] 상하이 렌두 회의 참석자 사진

#### ○ 4일차(18.11.29)

- 귀국 및 연구원 복귀

#### ○ 시사점 도출

- 장쑤성, 상하이시의 경우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 충분한 편임
- 농어업, 환경, 국제창업 등 분야의 다양한 협력사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농어업 6차 산업 육성, 국제창업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서 참여 의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상기 분야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도 작지 않으나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민감사항에 대한 협력은 초반부터 구체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관련 분야 정책공유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 환경상에 대한 참여 의지 역시 높은 편임.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상자·지역·단체 선정 과정의 합리성, 개방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